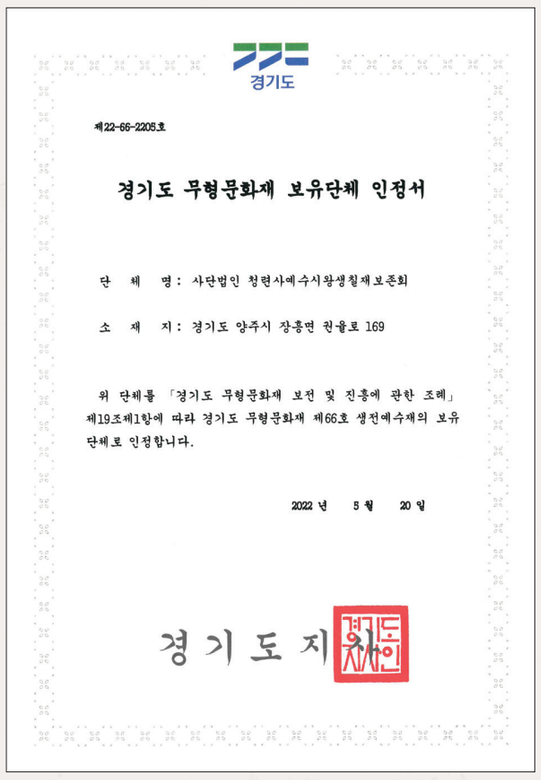
봉 ‘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축





제22-66-2205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위 단체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인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에서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청련사와 한국불교태고종은 물론, 우리 불교계 전체로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동방의 청련사는 서방의 백련사와 더불어 동서 양대 만다라 사찰로서 진호국가(鎭護國家)의 기도 터전으로 범패가 성행했음은 물론,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서울·경기 범음범패 소리) 동교파에 속한 중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로 출가한 능해 큰스님을 시작으로 덕봉 스님, 청호 스님, 춘담 스님, 벽파 스님, 백우 스님, 상진 스님으로 계승되어 생전예수재를 여법하게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련사는 종단을 대표하는 본산급 사찰로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는 사찰입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특히 뜻 깊은 이유는 학술적 고증을 통하여 전통의식에 따라 매년 설행된다는 점과 의식을 위한 설단, 장엄, 어산, 작법의 봉행 등이 청련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청련사의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련사가 한국불교 전통의식을 전승하여 더욱 빛나는 수사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6(2022). 7. 20.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도 광** 총 무 원 장 **호 명**
중앙종회의장 **법 담** 호 법 원 장 **혜 일**
포 교 원 장 **법 경** 초 심 원 장 **금 담**
선암사 주지 **시 각** 봉원사 주지 **원 허**
백련사 주지 **동 허**

상진문도회 **청련사 신도회**